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통합지원 패러다임

모색에 대한 탐색적 연구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 Exploratory Study of Integration-Support Paradigm for Transnational Marriage and Family: Focused on the Dongdaemun-gu Transnational Marriage and Family Support Center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 전공 · 생활과학연구소
부 교수 오윤자*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Oh, Yoon-Ja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통합 지원 패러다임 |
| II.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체계 | I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integration-support paradigm for transnational marriages and families as a well-grounded service model supporting a transnational family of immigrants in Korea at a time when Korean society showed increased interest in interracial marriages. The research mainly focused on the Dongdaemun-gu Transnational Marriage and Family Support Center, utilizing the relative actual practice at the center and the secondary data of previous studi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integration-support paradigm for transnational marriage and family comprised of the following elements : the institutionalization of welfare and medical services; the systematization of legal institution and execution the settlement of mid- and long-term policies and the practical programs of the government proper approaches to the formation of a healthy marital couple and family relations; total services related to

* 주저자, 교신저자 : 오윤자 (yoonja@khu.ac.kr)

rearing and educating children properly including education cost support to family incomehousing for the stabilization of family life support for socio-cultural exchanges within the family : as well as the radical conversion of social recognition of a transnational family. This paradigm is expected to be a well-grounded service for the integration-support of transnational families.

Key Words : 결혼이민자가족(transnational marriage and family), 통합지원 패러다임(intergration-support paradime),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transnational marriage and family support center)

I. 서론

한국가족과 관련된 빠른 변화는 가족의 위기적 담론으로 논하기 보다 가족 자체에 대한 이해 및 해석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있어서는 또다른 가족의 특성이라고 도구화하지 않으면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향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최근 국가간 인구이동에 의한 초국가적 이주가 일상화되면서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난 이주 여성화 경향은 지리, 사회문화, 정치적 경계를 초월하여 다중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인간은 사회화·문화화를 통하여 특정한 삶의 모델, 인식과 가치의 지향, 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는 방식을 자연스러운 질서로 수용하는 문화의 운반자로서, 그 틀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인식을 조직하고 주위 세계에 의미를 부여한다(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따라서 사회 문화접변의 변화가 다차원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하여 이주의 여성화는 주로 여성의 성성과 돌봄기능 공백을 매개로 친밀성이 상품화되고 서비스와 감정적인 헌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주 여성화의 한 형태인 결혼으로 형성되는 결

혼이민자가족은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채 일정한 사회문화적 공간에 공존하면서 피할 수 없는 변화와 새로움에 당면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가족 스펙트럼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현상으로서 차이에 대한 인식, 가치부여, 관계방향의 전환, 가족내·외부 관계 등 관심과 소통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결혼이민자가족은 국내외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의 대안으로 그리고 재혼이 어려운 남성들의 사회적 현상과 관련하여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통계청 발표(2007)에 기초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총 결혼건수(2006년 332,752건 기준) 대비 2005년에는 13.6%(약 43,100 건), 2006년에는 11.9%(약 39,700 건)로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중 41.0%가 결혼이민자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은 2006년 현재 결혼이민자 여성이 16,454명으로 전국 2위인 동시에 도시지역 1위에 해당되고 있으므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이민자가족의 증가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예측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다문화사회가 지배담론이 되었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관련되어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가 그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기도 하다. 진정한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를 향유만 하는 피상적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우리 사회의 초석이 되어 온 근본적인 가치와 원리들에도 다양함이 수용되어 새로운 다문화와 전지구적 정체성으로 유연한 관용적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오윤자, 2007b).

결혼이민자가족은 국가간, 문화간,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족간 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족 차원에서의 적응 및 다문화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는 가족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초국가적인 생애경로(transnational life-course perspective) 즉, 생계책임을 노동자, 아내, 어머니 등의 가족내 지위를 가질 뿐 아니라 두 개 나라의 국민으로서 복합적 교차 지역에 놓이게 된다(설동훈 외 8인, 2005). 따라서 이것은 전지구화, 이주, 가족, 젠더, 사회문화로부터의 복합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할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족에 관한 사회현상적인 관심이 크게 대두되면서 학문적 연구 역시 다양한 영역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외국의 경우 사례연구 중심의 경향을 보이는데 결혼이민 형성 유형에 대한 것으로서 형성 동기 및 과정(Schaeffer-Gabriel, 2003; Thai, 2002), 비판과 수용적 입장(O'Rourke, 2002; Perez, 2003; Simons, 2001) 등이 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들로는 역할 관련(Truong, 1995; Piper, 1997, 1999, 2003, 2004; Ball and Piper, 2002; Piper and Rocas, 2003) 이론적 접근이 있으며 최근 결혼이민자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Piper and Rocas, 2003)도 진행이 되었다. 즉, 해외연구의 동향(김이선 외, 2006)은 결혼이민에 대한 담론과 현실 차이에 대해 분석, 초국가적 맥락속에서 결혼이민자 여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가족문화 등을 분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국회도서관에서 국제결혼이란 단어로 검색할 경우 도서 125건, 학위논문 71건, 국내학술지 89건이며 결혼이민자로 검색할 경우 도서 27건, 학위논문 28건, 국내학술지 26건으로 2005년 이후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법무부, 노동부, 반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및 산하 전문기관 중심으로 정책과 실태조사 관련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구 전공영역은 생활과학, 문화인류학, 법학, 여성학, 복지학, 교양사회, 정치학, 지역학, 교육학, 국어학, 행정학, 농촌경제, 인구학, 청소년학 등 학문의 전체 영역을 망라한 연구결과들이 나타나 있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연구로서 미군 아내 연구(송성자, 1974; 박종삼, 1982; Yuh, 2002)가 있었다. 이후로는 국제결혼 실태(이금연, 2003; 최근정, 2003, 양혜우, 2005; 설동훈외, 2005; 법무부, 2006;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사례연구 및 정책, 법(김애령, 1998; 민경자, 2003; 광주여성발전센터, 2003; 위흠, 2003; 박현정, 2004; 이운애, 2004; 박재규, 2005; 박종보·조용만, 2006; 농림부, 2006; 김이선외, 2006; 문화관광부, 2007; 양승주, 2007), 국제결혼 적응과 갈등, 결혼이민자 가정(성지혜, 1996; 조성원, 2000; 홍기혜, 2000; 전수현, 2002; 김정선, 2004; 민가영, 2004; 이혜경, 2005; 정윤정, 2006; 한건수, 2006), 농촌 결혼이민자(김애령, 1998; 김정태, 2005; 박재규, 2005; 양순미, 2006) 국제결혼 중개업체(윤정숙·임유경, 2004; 한건수·설동훈, 2006) 등이 발표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학문적 영역 특성에 따라 관심이 달라짐을 알 수 있는데 사회과학에서는 국제적 인구이동과 노동력 시장의 구조 파악, 사회학에서는 재외한인 문화적응과 민족 정체성에 관심

을 두었다. 인류학에서는 문화적 충돌과 인종주의, 여성학에서는 젠더와 인권과 성매매, 생활과학에서는 부부적응과 자녀양육과 여성의 지위, 시민단체에서는 종합실용적 자료 등에 기초하여 주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일련의 연구들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현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 주체들의 다양성에 비하여 실태조사, 현황파악에 기초한 정책적 수요 중심이 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에 이어 사회 전반에 걸쳐 트렌드적 코드가 되고 있기도 한 것이다.

그 동안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로서 주로 우리의 정체성에 기초한 일방향적 접근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적 접근을 위하여 거시적인 측면의 정책이나 제도가 빠른 속도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동시에 실태조사 및 미시적 연구·상담 내용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적 차원 내지 생활실천 측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불편함에 대한 지적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증가 현상으로 볼 때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범정부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 또한 여전히 팽배해 있는 순혈주의, 차별의식, 문화적 편견 등을 되돌아보고 사회환경과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하여 통합적 지원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새로운 소수 약자로 등장하여 위기적·제한적·특별상황적 체류자로서 주변인적 지위로 이해되어 왔던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재구조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통합적 지

원 패러다임은 그 동안의 지원이 대부분 파편화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에 기초하여 그 효과성과 효능성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의 요구, 지원 내용과 지속기간, 지원의 단계 연대 및 전문화된 체계, 지원단체와 기관 등을 중심으로 개인·관계·전체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통합적 지원 패러다임이 준비되므로서 결혼이민자 개인의 강점 강화 내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가족의 건강성이 형성·유지·확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일련의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연계하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 통합 지원 패러다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전략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관련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결혼이민자가족을 살펴봄에 있어서 그 동안 주로 사용해 온 문화인류학적 관점, 여성주의적 관점을 포함하여 가족학적 관점 및 사회복지적 측면을 기저에 두고자 한다. 간략히 살펴보면 문화인류학적 관점은 언어, 생활양식, 가치관 등의 문화인류적 차이에 대한 관심과 편견이 극복되어야 하는 점에, 여성주의적 관점은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이주 여성으로 형성된 점에 관심을 둘 수 있다. 가족학적 관점은 결혼을 통해 형성된 결혼이민자가족이 개인과 관계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적 측면은 교육을 포함하여 의료복지 등의 지원이 필요한 측면에서 기초가 되는 이론적 접근방법이 된다. 본 연구의 방법적 절차는 주로 관련 통계자료 및 문헌 연구 고찰,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사업과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II.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체계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체계는 NGO를 포함하여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우선 형성되었다. 후속으로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전달체계로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개설되었다. 또한 최근 정부 기관들이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1. 지방자치단체 및 NGO·종교단체, 민간기관을 포함한 관련기관

근래 들어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동사업으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NGO를 포함한 민간단체 역시 거시적인 인권 차원으로부터 지역사회주민으로서의 사소한 생활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일련의 활동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결혼이민자 지원연대,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단체, 시민단체, 종교관련 단체, 여성의 전화 및 여성관련 단체 등이 주요 기관들이 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어와 한글 교육, 의료지원, 문화활동, 정보교육, 음식 문화교육, 출산과 모성보호 및 자녀 학습지원, 부부 및 시부모 교육 등이 있다. 즉, 국가를 초월하여 개인의 인권 보호,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에 비해 김이선 외(2006)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연결망, 복지 증진, 상담, 취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 출신국 문화교류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원 기관들 자체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포함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권리보호(이혜경, 2006)를 위한 책무감, 다수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자, 종교성, 지

역사회의 정체성 등이 나름대로의 강력한 지원체계가 되어 온 것이다. 또한 다양한 모기관이 주관하고 있으므로 결혼이민자가족에게 지원적이며 즉각적인 특성적 지원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을 통하여 가족의 안정성 제고 및 다문화 사회통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 전달체계로서 설립되어 전국에 40여 개 센터가 운영중에 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육지원사업(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문화이해교육, 정보화 교육 등), 가족생활상담 및 정보제공사업, 자녀보호사업, 자조집단 육성지원 및 지도자 양성사업, 정서적·문화적 지원 사업, 멘토 및 후원가족 매칭 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아동돌보미 사업, 결혼이민자 모니터링단 운영 등이 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결과(양승주, 2007) 주요 성과로 첫째, 로드맵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서비스 활성화로서 서비스 기관 증가 및 방문서비스 확대 등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제고되었다. 둘째로는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통합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한 점이다. 반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서비스의 다양화 및 체계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중적인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확대와 함께 프로그램의 세분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역차원의 통합서비스 조정기능의 취약성이 파악되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에 있어서 지

(표 1) 전국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현황

구분	(단위 : 명, %, 개소단위 수)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센터	40															
지역	성북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남구 사상구	남구 달서구	인천시 (남구) 강화군	광주시 (서구)	대전시 (중구)	울산시 (남구)	수원시 부천시 안성시 남양주	도 춘천시 강릉시	청주시 옥천군	아산시 공주시 금산군	익산시 김제시 장수군	도 순천시 나주시 영암군	도 구미시 포항시 문경시 예천군	도 진주시 김해시	제주시
구분	위탁	직영	위탁	직영 위탁	직영	위탁	위탁 직영	위탁 직영	위탁 직영	위탁	직영 위탁	위탁	직영 위탁	위탁 직영	위탁 위탁	위탁
모기 관명	(사)결혼 이민자 지원연대 서울센터	여성 회관	불교 사회 복지회	여성 복지관	여성 발전 센터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재)천주 교수원교 구유지 재단	종합사회 복지관	(사)충북 이주여성 인민센터	아산시청 기독교 종합사회 복지관	아산시청 기독교 종합사회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여성회관 순천시지역사 회복지협의회 (사)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연대전남센터	전통대학교 아름다운가정 만들기	건강가정 지원센터	YMCA 세주 외국인 근로자 센터
여성 결혼 이민자 수	66,709 (100)	3,318 (5.0)	1,816 (2.8)	4,260 (6.4)	1,194 (1.8)	1,551 (2.4)	16,989 (25.4)	2,029 (3.0)	2,206 (3.2)	3,306 (4.6)	2,819 (4.2)	2,979 (4.6)	2,963 (4.4)	3,252 (4.8)	536 (0.8)	

주) 출처 : 여성가족부(2007). 2007년도 시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지침. <http://www.mogef.go.kr>
중앙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calss/>

역별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즉, 경상북도에서는 새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 충북 청주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전북 익산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여성가족부, 2007)으로 지역적 여건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을 특성화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향후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은 지역적인 결혼이민자가족의 요구 및 실태 중심으로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양승주(2007) 역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교육을 체계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체계적인 사업운영을 독려하도록 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과 현황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서울시로부터 위탁받고 수행했던 시범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동대문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다. 2006년도에 서울시 시범센터로서의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서 <표 2>와 같은 사업과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표 2) 2006년도 서울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 영역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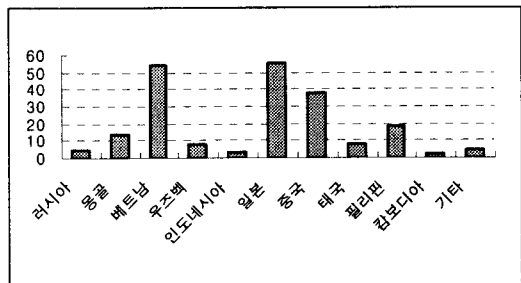
교육 사업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가족지원교육, 정보화교육, 직업교육
상담 사업	전화, 면접상담 및 심리검사
자녀 보호 사업	한국어교육 시 자녀보호
자조집단 사업	자조집단 모임, 자원봉사자
문화·정서지원사업	문화 프로그램
홍보 및 네트워크 사업	홍보 및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본 연구에서는 시범사업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2007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용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일본, 베트남, 중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국 분포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용자 현황에 있어서는 각 사업의 프로그램별로 순인원과 연인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일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첫 회기에 원서작성 절차를 통하여 접수한 인원이 순인원이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체 목표달성을 위하여 단계별 하위목표가 설정되어 연속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다수이므로 각 단계마다 참여한 대상자를 모두 합한 것이 연인원으로 계수되어 있다. 연속적인 프로그램이 아닐 경우에는 새로운 단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인원에 대한 파악 역시 중요한 분석요소가 될 수 있다.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용자 현황에 기초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베트남과 일본 출신이 많으며 3년 미만의 결혼 초기 이민자들이 대부분인데 학동기 자녀를 둔 10년 이상의 결혼 중기 이민자들도 포

(그림 1) 동대문구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국적별 이용자 분포



기간: 2007. 1 - 2007. 9

대상: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입회원서 작성 및 제출

함되어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역시 다양한 사업 중에서 자아성취와 경제활동을 위한 직업 관련 욕구 및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유아기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다수의 문화체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였다. 또한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속해 있는 서울시는 결혼이민자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현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업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직업정보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사업 구분 및 세부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근거하되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 지역과 지원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성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다. 우선 공통사업, 지역특화사업, 기타사업으로 아동양육지원사업이 2007년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 네트워크 구축사업, 외부지원사업 등으로 결혼이민자가족을 지원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향후 결혼이민자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역량에 적합한 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의 특성으로는 첫째, 체계적·상호적·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자들에게 요구도가 가장 높은 한국어교육과정을 전문적인 커리큘럼에 기초하여 심화한 점을 들 수 있다. 교육대상자들이 한국어 수준 테스트를 엄격하게 받으며 한국어교육 강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전공 석사학위 이상으로 자격을 강화하였다. 이는 결혼이민자 당사자의 정확한 언어 교육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2세인 자녀교육을 위하여 단순히 말을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문화정서 사업영역인 음식문화교육 역시 한국음식과 문화, 출신국 음식과 문화의 교류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식품영양 전공의 교수와 전문가에 의하여 전문 실습실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즉, 일상적인 음식과 절기음식, 음식문화, 예절 및 양국 음식 시식코너 운영을 통하여 각 나라의 전통과 퓨전 스타일을 학습하게 되며 실습 직전 이론 강의가 병행되어 해당 음식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조리한 음식을 동대문구 거주 독거노인에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배달함으로써 단순한 수혜자의 역할을 초월하여 지역 사회구성원으로 의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둘째, 전문성과 인적 물적자원의 one-stop 서비스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무용교육, 부모교육, 정보화교육 등에 있어서도 무용 전공 교수와 전문적인 무용 실습실, 유아교육 및 아동학 전공의 전문가와 아동연구센터, 정보교육 전문가와 컴퓨터실 등의 연계로 최상위 수준의 여건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한

〈표 3〉 동대문구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국적별 이용 실태

	내용	N(%)	내용	N(%)
국적	러시아	5(2.37)	중국	38(18.01)
	몽골	14(6.64)	태국	8(3.79)
	베트남	54(25.59)	필리핀	19(9.00)
	우즈벱	8(3.79)	캄보디아	2(0.95)
	인도네시아	3(1.42)	기타*	5(2.37)
	일본	55(26.07)		
전체	15개국 211명			

* 기타 출신국 :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대만, 뉴질랜드, 네팔

기간: 2007. 1 - 2007. 9

대상: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입회원서 작성 및 제출자

〈표 4〉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 및 현황

구분	세부사업 영역		세부 내용	참여인원(명)		
공통사업	교육사업	한국어교육	· 한국어 수준별 교육 및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순인원	745	
		가족교육	· 부부교육 · 배우자 교육 · 가족교육 · 부모교육	연인원	2,019	
	상담사업	전화상담	심리검사	· 전화상담 · 면접상담	순인원	189
		부부·가족 상담	· 체류, 인권, 폭력 상담			
		또래상담	· 이혼 전후 상담			
		자조집단	· 청소년자녀양육 및 교육상담			
		전문가 수퍼비전	· 결혼이민자와 친구되기 · 상담자 워크샵			
	특화사업	문화정서 지원 사업		· 한국음식 만들기 · 박물관 체험 · 모국인과의 만남 · 다문화 포토 스튜디오운영	순인원	1,507
		직업 및 다문화강사 교육사업		· 직업교육 · 직장체험 · 다문화강사양성교육	연인원	1,507
기타사업	아동양육지원사업		영유아 양육 지원 아동학습 지원 정서적 지원 한국어 및 한국생활 상담지원	대상	35가정	
	자원봉사자 교육사업		개인·가족봉사자 기업봉사자	도우미	8	
홍보 및 네트워크 사업	홍보물 제작		현수막, 리플렛, 불펜, 열쇠고리		130	
	언론 홍보		KBS, KTV 연합뉴스		20	
	유관기관 홍보		구소식지, 햇빛통신, 가정문화포럼		18회	
	유관기관 회의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경희대학교국제교육원, 광진초등학교		12회	
외부지원 사업	문화로 하나되는 우리, 열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영상제작 교육(시사회 1회 포함)	순인원	8	
			다문화교육(국악공연 1회 포함)	연인원	107	
			무용 교육	순인원	30	
			현장체험 교육	연인원	462	
			무용 교육		11월 예정	
			현장체험 교육		35	

출처 :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007년도 상반기 이용 실적 정리(2007. 1.- 2007. 9.)

잇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박물관과 학예사, 자연사박물관과 생물학 전공의 전문가, 가족문화 프로그램에서 의상전문가와 염색실, 한의대 방제학교실·응원단 등 대학생 중심의 전문 동아리, 경희자원봉사단을 비롯하여 대학이 보유한 전문적인 인적 물적자원의 총체적인 활용이 수월한 점이다. 결혼이민자가 특정 프로그램에 개입되어 있을 때에 동행한 고통의 확대가족 구성원이나 영유아기의 아동을 위하여 시부모 및 확대가족교육, 영유아기 아동의 놀이지도 등을 직접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된 연계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셋째, 찾아가는 서비스의 실천으로서 적극적이며 수용적인 특성이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가족의 요구에 민감하기 위하여 즉각적이며 해

결지향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부 지역 초등학교 결혼이민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자녀 대상으로 생활 및 학업지도, 영유아기 자녀 돌봄 및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돌보미 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구조화된 형식적인 장소가 아닌 곳일지라도 서비스의 질이 감소되지 않도록 대안적 준비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과 내용과 연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넷째, 포괄적이며 예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들면 통역과 함께 하는 전문적인 가족교육과 상담을 전개해 나가면서 결혼이민자가족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고 관련된 교육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

〈표 5〉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별 만족도 내용 분석

사업 구분		주관적 평가사항	만족정도
공통사업	한국어교육	가장 선호 국적별 반 분반 집에서 한국어교육 어려운 문법 쉽게 설명	95.20(%)
	가족통합지원교육	의사소통시 위기대처전략 다른 결혼이민자가족 교류 엄마나라, 부인나라 이해 확대가족에게 공부 기회 제공	97.48(%)
	가족상담사업	심리정서지원 정보자료 제공 센터 프로그램 연계 기타(국적취득, 타기관 연계)	상담회기 진행중
특화사업	문화·정서 지원사업	문화체험기회 마련 가족단위 만족 자녀교육 조력	97.51%
	결혼이민자가족 역량강화	한국문화 및 다문화 이해 기회 직업적성 이해	100%
외부지원사업	다문화교육 영화교육 무용교육 현장체험교육		사업 진행중

출처 : 2007년도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서면평가서(사례수는 사업별로 차이)

하므로 건강한 개인·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한 개입을 하고 있다. 또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결혼이민자의 요구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최적의 해결을 위하여 지

(표 6) 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을 위한 중앙 부처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방안

조치사항	주관부처	협력기관
1.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① 결혼중개업체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	법무부	경찰청
②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입법 추진	복지부	
③ 인신매매 등 중개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법무부	외교부, 여가부, 경찰청
④ 결혼비자 발급 서류·절차 표준화	법무부	외교부
⑤ 외교채널을 통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외교부	
⑥ 결혼 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제공	여가부	복지부, 외교부
2.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①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요건 강화	법무부	
②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③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시 입증요건 완화		
④ 사실혼 부모 출생자녀 및 외국인 모에게 국적 또는 영주권 부여		
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보호	여가부	법무부
3.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①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여가부	법무부, 행자부, 정통부, 지자체
②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 지원	여가부	문화부, 교육부, 농림부
4.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① 다문화교육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지원 기능 강화, 교사역량 강화,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부	
②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복지부	교육부
5.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① 기초생활 보장 및 건강증진 지원	복지부	여가부
②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복지부	여가부, 농림부
③ 직업상담 및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	노동부	
6.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① 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여가부 법무부	
②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문화부	교육부, 행자부, 지자체
③ 공무원 교육 실시	인사위, 여가부, 법무부	전부처, 지자체
④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복지부, 행자부, 교육부, 농림부	
7. 추진체계 구축		
①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여가부	행자부, 교육부
②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지자체
③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및 통역, 상담, 교육인력 양성	여가부 복지부	
④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중앙, 지방정부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여가부	

출처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보고서(2006)

원하고 교육과 상담 등의 영역에서 결혼이민자가족의 특이한 욕구가 있을 때에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하여 효능성 측면을 평가하고 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사업과 현황을 분석해 봄으로서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지원 체계의 다양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 수행(<표 5> 참조) 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결혼이민자가족의 요구에 기초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방법과 과정이 매우 다양하므로 그 효과성과 효율성 평가 역시 예측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족의 요구, 상황, 잠재적이며 미래적인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바이다.

4. 정부의 사회통합 지원 정책

결혼이민자 개인과 그 가족이 겪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향후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될 우려와 국가적 위상이 저하될 수 있는 복합적 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정책도입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오윤자, 2007b).

결혼이민자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중심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관심(김애령, 1998; 강원도청, 2001; 민경애, 2003; 광주여성발전센터, 2003; 이윤애, 2004; 이윤애, 2005; 민경자, 2003; 정기선외 6인, 2007)이 시작되어 2005년 8월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1차 지원대책이 사회문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마련되었다. 즉, 6개 영역-안정적 체류지원, 생활정보 제공, 언어 및 문화이해 교육, 가족관계 증진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훈련, 일자리 연계지원 등-에 관한 27개의 세부 과제

가 구성되어 추진안이 구성된 바 있다. 그러나, 초기 개입으로 체류자격 관련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2005년 11월에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주관으로 2차 지원대책을 생활상의 시급한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3차 대책에서는 결혼과정상 문제점, 추진체계, 정책관계자 교육 방안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6년 4월에는 사회통합 지원 대책으로서 12개 부처-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가 함께하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결혼이민자가족을 포함하는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지원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같은 해 5월에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하였다.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은 일시적 거주자가 아니므로 이들과 관련된 일련의 중앙정부 정책은 중앙·도시중심적 정책을 기본 모델로 하여 지방과 지역은 그 적용하는 사례로 접근해오는 관행은 지양(김혜순, 2006)되어야 한다. 중앙 중심의 연구와 정책일지라도 지역 밀착적이고 지역 특성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에 관한 정부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은 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 및 당사자 보호, 안정적인 체류지원, 조기적응 및 정착 지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사회적 인식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추진체계 구축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것 외에 결혼이민자가족 통합지원을 위하여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우선 법적 체계에 관한 것이 있다. 결혼이민자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 법체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법적 장치가 제도적으로 긴급히 준비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일부 법제화된 내용들은 각각 다른 개별적인 법체계에 산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형편이다. 예를들면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외국인근로자의 공동등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차별방지법 등(박중보 외, 2006)이 결혼이민자 및 가족과 관련있는 구체적인 현행 법률안들이다.

최근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박중보 외, 2006)에서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기피하는 업종의 노동자로 대체되거나 결혼이민자가족 형성 역시 우리 사회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출생문화, 민족적 구성, 체류자격에 따른 다양성을 염두에 둔 결혼이민자가족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고경화의원 대표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안(장향숙의원 대표발의)이 제안되어 있는 중이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의 맥락적 구성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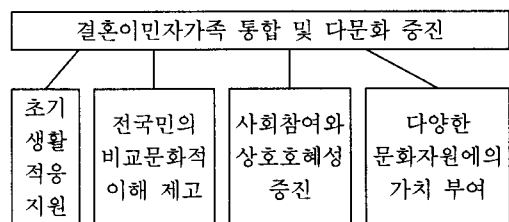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사회보다 앞서 다문화를 경험한 외국의 사례에 대한 적용과 활용 부분이다. 급격한 결혼이민자가족의 증가로 인하여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혼이민자 대부분의 경우, 우리 사회로의 적응이 시급함과 동시에 출신국 문화에 대한 보유와 전달 책무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우리의

위치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이 우리 사회에서 대도시, 수도권, 중소도시, 농촌 그리고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비록 성공적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정책과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움이 클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본, 독일,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대만, 영국, 호주, 미국 등의 결혼이민자 관련 사례들이 언급되고 있다. 그 중 일본의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은 결혼이민자가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공생관계로 설정하여 이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인권이 보장되고 결혼이민자 출신국의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객관적인 태도가 확립된 지역사회 구축이 목표이다(김이선 외, 2006). 또한 독일은 새로운 이민법을 제정, 독일의 경제·문화·사회·영역에 원활히 통합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코스를 마련하여 언어교육과 함께 독일 국가에 대한 이해를 위한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인종차별주의 대처와 민족간 소통-이해의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이 주목할 내용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자녀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사회보조기금, 다국적 판본의 가정교육수첩 제작, 공공부조, 가정폭력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문순영(2007)이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이주민 이삼세대의 소요사태는 동화주

〈그림 2〉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외국 정책의 핵심



출처 : 김이선 외(2006) 기초하여 재구성

의 정책의 미래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고 미국의 melting pot 역시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면한 바 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보고서, 2006; 김이선 외, 2006; 양순미, 2006; 장혜경, 2006)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III.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통합 지원 패러다임

상기 언급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가족의 증가는 전반적인 사회구성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상호작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지원과 관련하여 볼 때 기존 패러다임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체적인 지원체계가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합 지원 패러다임의 바탕은 결혼이민자 자신에 기초하여 개인적·관계적·가족적 차원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관련 부서의 연계적인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합 지원 패러다임은 지원 내용, 지원 구조, 지원 기관, 지원 정책 등에 있어서 전문적·단계적·체계적·종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준비된 통합 지원이 이루어질 때 결혼이민자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전달체계적이며 성장발달을 지향하는 것과 함께 향상을 위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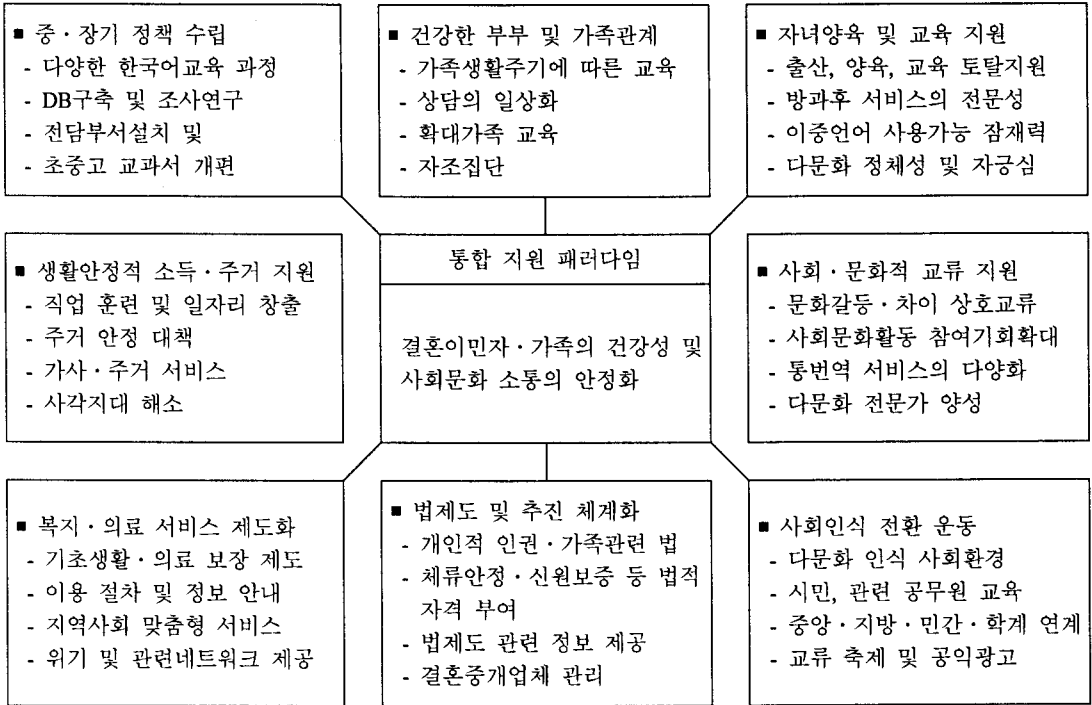
통합적 지원 패러다임을 위하여 우선 기존의 연구 및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 체계와 구성내용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적 특성,

연구결과에서의 주요 핵심과 차이, 대안 등을 분석하여 내용의 시계열성 및 구조적 맥락에서 통합적인 지원 내용을 산출해 내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결과에서 개인 차원, 가족 차원에서 볼 때 특히 가족단위 접근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다원적 전략이 관·민·학·지역사회 중심으로 연계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통합 지원 패러다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가족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을 통하여 중복적인 측면과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주요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기관, 학술단체, 지역사회기관 등을 중심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나 정책 방안 등이 합의과정을 통하여 현장에 응용실천되는 기회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전문가 집단 등의 구조적이고 표준화된 모니터링으로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상호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양방향적 관점이어야 함이 강조되어야 한다.

기존 중앙 정부에서 제시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대책은 중앙중심적이며 도시일부지역 중심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 중심의 결혼이민자가족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여 거주할 확률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농촌 등의 지방에 형성되는 결혼이민자가족은 기존 거주지역 중심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대책을 그대로 지역적 모델로서 적용할 경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에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통합 지원 패러다임이 갖는 차이점은 지역으로부터 출발하는 현장성이 용이할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자신, 한국인 가족, 지역사회 전반의 상호작용적인 실천이 충분할

<그림 3> 결혼이민자가족 통합지원 패러다임



것이라는 차별화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통합 지원 패러다임은 구체적인 내용 <그림 3>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즉, 대상으로서 결혼이민자 개인과 가족 차원에 대한 고려, 지원 내용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내용 중심으로 단기적 장기적인 계열적 지원의 특성을 가지고, 지원 기관으로서 관-민-산-학의 협동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혼이민자가족의 일상적인 생활이 퍼즐을 연결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 실태 조사 및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결혼이민자가족 서비스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가족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개인 및 가족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와 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 관련된 하위체계들의 지

원 내용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미 여성가족부의 정책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각지대 및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접근과정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IV.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을 위하여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즈음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에 관한 통합 지원 패러다임을 탐색해 보았다. 관련 실태조사 및 선행연구 고찰, 그리고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사업과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결혼이민자가족 통합 지원 패러다임에 있어서, 지원대상으로서 결혼이민자의 개

인과 가족 차원, 지원기관의 다차원적인 협동연대, 지원구조 및 내용에 있어서 생활국면을 총망라하는 전문성과 시계열적 지속성을 갖추어야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복지·의료 서비스 제도화, 법제도 및 정책 추진의 체계화, 결혼이민자가족 관련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및 실천방안 수립, 건강한 부부 및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접근,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포함하는 토탈 서비스, 생활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소득과 주거에 대한 지원, 사회 문화적 교류 지원, 사회인식의 적극적인 전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탐색하였다.

이 통합 지원 패러다임을 조력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오윤자, 2007b).

첫째, 개인·가족적 차원으로, 결혼이민자의 개인적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개인적 입장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결혼이민자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와 함께 이를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정서적 차원의 안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적응과 동화를 위한 수혜, 지원 등의 초기 일방향적인 접근이 제공되는데 이 경우 의존적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가 기본 의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존의 삶을 경험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권리에 대한 홍보 역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건강한 가족생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하여 가족생활의 건강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적 성장, 부부, 부모, 확대가족관계 등)이 전문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함께 결혼이민자가족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한 신속한 연계 체계가 마련되어 이에 대한

정보가 결혼이민자는 물론 가족구성원에게 제공되므로서 필요할 경우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종종 문화 차이로 인한 충격은 대부분의 결혼이민자가족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므로 자조집단을 구성하여 참여를 정례화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특히 그들의 잠재적 능력이 사회통합을 위한 또다른 자원으로 사회에 환원되는 적극적인 기제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므로 결혼이민자 출신국에 대한 금지와 지식을 상호 전수받게 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제도적 차원으로서, 선행연구 결과 또는 실태조사 자료를 통합할 뿐 아니라 재구조화를 하여 실제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일목요연한 정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 기초하여 결혼이민자가족에게 제공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전달체계를 강화하므로서 실천 여부에 대한 후속 조치까지 계열적으로 조직해 놓는 것 역시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 된다. 다양한 정책과 기구가 가동되고 있을 지라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적정한 예산 배정 및 평가시스템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표준화된 매뉴얼 조차 없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현실적 수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셋째, 사회적 차원으로, 편견과 배타적 인식 버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건강한 다문화사회 구현 캠페인 및 홍보, 일선 공무원과 교사가 포함된 다문화관련 교육의 정례화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있어서 제한점은 본 연구의 인용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앙부서 마다 집계한 결혼이민자의 정보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

으므로 결혼이민자 관련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매우 시급하며 이는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본요소가 된다. 결혼이민자가족 통합 지원 패러다임은 현상적으로 나타난 요구를 포함하여 잠재적인 요구, 미래적인 요구를 만족시켜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근거로 사용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강원도청(2001). 외국인 주부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토론회 자료집.
- 2) 광주여성발전센터(2003). 외국인 주부 실태 조사.
- 3) 김애령(1998). 충남 거주 조선족여성의 결혼과정과 적응에 관한 연구. 충남도청.
- 4) 김은숙, 김승희(2007).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실태 및 지역사회적응 지원방안. 강원발전연구원.
- 5)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6) 김정선(2004). 이주노동자 남성과 한국 여성의 '가족'만들기를 통해 본 지역 가부장제의 변형 및 재구성. 국가횡단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연구소, 5-41.
- 7) 김정원, 이혜영, 배은주, 허창수(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8) 김정태(2005). 농촌지역 결혼연령 성비 분석과 국제결혼의 의의. 한국사회의 지구화와 근대성 : 2005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05-114.
- 9) 김현미(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 번역 : 젠더, 인종, 계층의 경계를 넘어.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10) 김혜순(2006). 한국의 다문화 사회 진입과 사회문화적 적응지원 체계. 한국의 다문화 사회 진입과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보육의 방향. 2006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문. 한국보육지원학회.
- 11)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12) 문순영(2007).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72(1), 109-142.
- 13) 문화관광부(2007). 문화정책백서 200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4) 민가영(2004). 글로벌 자본과 로컬 가부장의 충돌과 공모 : 조선족 여성이주를 둘러싼 조선족 사회의 여성유실 담론을 중심으로. 국가횡단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연구소, 43-71.
- 15) 민경자(2003). 충남 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16) 박재규(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 지역 정착과 지원방안. 한국사회의 지구화와 근대성 : 2005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23-128.
- 17) 박중보, 조용만(2006).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18) 박중삼(1982). 한미 국제결혼에서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의사전달 갈등의 이론적 고찰. 송진대학교 논문집 12, 123-128.
- 19) 박현정(2004).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광주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1-34.

- 20) 법무부(2006). 2005년도 출입국관리국 정책연구 보고서. 법무부.
- 21)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 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22)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2006). 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23) 성지혜(1996). 중국교포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24) 송성자(1974).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 갈등 : 미 8군 전신위생과에 의뢰해 온 미 국군인배우자를 가진 한국여성을 중심으로 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25) 신기동 외(2006). 외국인근로자 정주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경기개발연구원.
- 26) 여성가족부(2007).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 전국대회 자료집.
- 27) 양순미(2006).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적응 정책 모색. 한국자치행정연구 5(5), 111-128.
- 28) 양승주(2007).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지원 대책.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 전국대회 자료집. 여성가족부, 16-25.
- 29) 양옥경(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지원방안. 서울정책포커스 27, 1-20.
- 30) 양혜우(2005). 이주여성화와 국제결혼.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릴레이 토론회: 참여정부 2년, 사회통합정책 평가와 과제 - 종합자료집.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446-460.
- 31) 오윤자(2007a).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결혼이민자가족 통합적 지원 체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의 실태 파악 및 고찰을 통한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 포럼.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 32) 오윤자(2007b). 다민족·다문화사회의 도래에 있어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본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 전략 탐색. 한나라 여성 릴레이토론회 2차, 해외이주여성 뿌리내리기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13-41.
- 33) 위홈(2003).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34) 윤정숙, 임유경(2004). 성별화된 이주 방식으로의 국제 결혼과 여성에 대한 폭력 : 필리핀 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
- 35) 이금연(2003).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국경과 인종, 피부색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평등과 연대를 향해. 이주노동자지원단체 연대.
- 36) 이윤애(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 지원 방안.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 37) 이해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38) 이해경(2006). 이주여성과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와 여성·청소년의 도전. GRI 연구총서⑥ 경기개발연구원.
- 39) 장혜경(2006).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자치행정연구 5(5), 96-110.
- 40) 전수현(2002). 필리핀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의 주변적 지위. 서울대학교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41) 정기선, 김영혜, 박경운, 이은아, 박지혜, 이승애, 이지혜(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42) 정운정(2006). 결혼이민자 가정의 특성과 아동들의 학교적응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

- 으로. 카톨릭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43) 조성원(2000).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계층 한국여성의 결혼사례를 통해 알아본 새로운 마이너리티의 형성과 재생산. 한양대학교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44) 최근정(2003). 우편주문신부 그 현황과 성매매로서의 의미. 국제 성매매근절 운동팀 강연회 자료집.
- 45) 통계청(2007). 2006년 혼인통계 결과.
- 46) 한건수, 설동훈(2006). 결혼중개업체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47) 홍기혜(2000).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48) Ball, Rochelle Ball and Nicola Piper (2002). Globalization and Regulation Citizenship : Filipino Migrant Workers in Japan. *Political Geography* 21, 1013-1034.
- 49) O'Rourke, Kate(2002). To Have and to Hold : A Postmodern Feminist Response to the Mail-Order Bride Industry. *Denver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30(4), 476-497.
- 50) Perez, Beverly Encarguez(2003). Women Warrior Meets Mail-Order Bride : Finding an Asian American Voice in the Women's Movement. *Berkeley Women's Law Journal* 18, 211-236.
- 51) Piper, Nicola(1997). International Marriage in Japan : 'Race' and 'Gender' Perspectives. *Gender, Place and Culture* 4(3), 321-338.
- 52) Piper, Nicola(1999). Labor Migration, Trafficking and International Marriage : Female Cross-Border Movements into Japa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5(2), 69-99.
- 53) Piper, Nicola(2003). Wife or Worker? Worker or Wife? Marriage and Cross-Border Migration in contemporary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9, 57-469.
- 54) Piper, Nicola(2004). Rights of Foreign Workers and the Politics of Migration in South-East and East Asia. *International Migration* 42(5), 71-97.
- 55) Piper, Nicola and Mina Roces (eds) (2003). *Wife of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Lanham, MD :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 56) Schaeffer-Grabiel, Felicity(2003). *Cyberbrid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 Transnational Imaginaries, Migration and the Intimate Economy of Marriag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America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Minnesota.
- 57) Simons, Lisa Anne(2001). *Marriage, Migration and Markets : International Matchmaking and International Feminism*.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 58) Thai, Hung Cam(2002). Clashing Dreams : Highly Educated Overseas Brides and Low-Wage U.S. Husbands, 230-253 in *Global Women :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edited by B. Ehrenreich and A.R. Hochschild. New York : Metropolitan Books.
- 59) Truong, Thanh-Dam(1995). Gender, International Migration and Social Reproduction : Implications for Theory, Policy, Research and Networking.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 Internatoinal Female Migration and Japan :
Networking Settlement and Human Rights.
December 12-14. 1995. at the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Meiji Gakuin
University. Tokyo.
- 60) Yuh, Ji-Yeon(2002). Beyond the Shadow
of Camptown : Korean Military Brides in
America.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 61) <http://cafe.naver.com/kwwelfare/166>.
62) <http://www.familynet.or.kr/calss/>.
63) <http://www.mogef.go.kr>.
64) <http://women.na.go.kr/index.jsp>.
- 접수 일 : 2007년 10월 15일
 - 심사 일 : 2007년 10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11월 22일